

①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과 유형

한 만 길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손 계 림
중국 동북사범대학 교수



북한의 고등교육은 북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고급 전문 지식인을 육성하고 민족적 간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대학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필요한 혁명 간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북한의 고등교육은 1945년 해방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쳐왔다. 1945년

북한의 고등교육

1.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과 유형
2. 북한 고등교육의 운영, 학생선발, 교수과정, 졸업
3. 김일성종합대학의 발전과 현황
4.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과학 기술 교육
5. 김형직사범대학과 교원양성
6. 고등전문학교와 직업기술 교육
7. 공장대학과 성인교육

해방 당시에는 북한 지역에 단 하나의 대학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1994년 현재 북한은 대학 266개교, 고등전문학교 485개교, 고등교육을 이수한 지식인이 173만 명으로서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고등교육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첫 회에서는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 대학의 유형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

해방 이후 북한의 고등교육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제1단계는 김일성종합대학 육성 시기, 제2단계는 기술교육 발전 시기, 제3단계는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시기, 제4단계는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정예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 4단계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김일성종합대학 육성 시기 (1945~1953년)

북한은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형의 공산주의 인간을 양성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앞장설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기초를 확립하는 한편,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설립하여 북한 대학의 모체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1945년 당시에는 북한 지역에 대학은 하나도 없었으며,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35%에 불과하였다. 문맹자는 전체 인구 900만 명 가운데 약 60%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후진적인 교육상황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기초를 확립하는 한편, 김일성대학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혁명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북한은 1946년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10대 과업을 공표하였는데, 교육제도는 '국내의 민주주의적 개혁과 적당한 국민교육제도를 개조'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10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6년 3월에는 '20개조

정강'을 발표하였으며, 교육과 관련하여 '전반적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국가경영의 초, 중, 전문, 대학교를 광범하게 확장할 것과 국가의 민주주의 제도에 따라서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할 것'을 천명하였다. 3월 5일에 '학교사업 개선책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학제로서 인민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기술전문학교 3년, 대학 4년의 5-3-3-4제를 채택하였다.

고등교육의 발전으로서 특징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김일성 자신의 구상에 따라 창설되었다고 하는데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인물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에는 고등교육의 토대가 전혀 없었으며 전문가와 지도적인 인재가 매우 적었다. 이리하여 북한이 광복 초기에 부딪치게 된 난관을 극복하고 각 분야의 민족간부와 기술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종합대학을 창설하고자 하였다. 종합대학을 먼저 창설하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단과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민족간부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일성종합대학은 1946년 10월 창설하였는데 당시에는 7개 학부, 24개 학과, 30학급으로 구성되었다. 1년 후에는 8개 학부, 39개 학과, 93학급으로 확대되었다. 이어서 1946년에 함흥의학대학, 청진교원대학, 흥남공업대학, 해주교원대학 등 5개 대학을 설립하였으며, 1947년과 1948년에는 평양공과대학, 평양의학대학, 청진의학대학, 신의주교원대학, 평양사범대학, 사리원농업대학 등 6개 대학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1950

년대 초 북한에는 15개 대학이 설치되었으며, 학생수는 1만 1천여 명에 이르렀다.

2) 기술교육 발전 시기(1953~1972년)

휴전 이후에 북한에서는 전쟁 피해의 복구사업과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 건설을 도모하기 위하여 1953년부터 1959년의 기간 동안 5개년 경제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학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즉, 인민학교를 4년으로 축소시키고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을 두면서 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953년 7월의 학제 개편을 통하여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기술전문학교와 사범전문학교를 설치하였으며, 성인교육으로서 초급중학교 단계에서는 야간기술학교를 설치하였다. 또한 고급중학교 단계에서는 야간기술전문학교, 통신기술전문학교를 설치하였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2년제의 고등기술전문학교를 설치하였다. 1959년의 학제 개편에서는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급중학교를 폐지하고 기술학교로 개편하였다. 이로써 북한의 학제는 인민학교 4년, 중학교 3년, 기술학교 2년, 고등기술학교 2년의 단계를 거쳐서 대학 단계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성인교육에서도 근로자학교 2년, 근로자중학교 3년, 야간기술학교 2년, 야간 및 통신고등기술학

교 2년 과정을 두었다. 특히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설치하여 고등교육 단계에서 기술교육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953년 8월 김일성은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기본 과업을 성과있게 실행하여 장차 북한을 공업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서는 고등교육과 기술교육 사업을 강화하여 민족간부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¹⁾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교육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전쟁 전에 있었던 대학을 완전 복구하도록 하고, 둘째로 국가 관리들의 지도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대학을 신설하며, 셋째로 전후 복구 건설에 많이 요구되는 건축 기술자, 건설 지도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건설 대학을 설립하고, 넷째, 축산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의(獸醫) 축산대학을 신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생 총수의 70% 이상을 공과 계통과 자연과학 계통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공장대학은 북한에서는 1951년 전쟁중에 신설되었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은 1951년 1월과 2월에 평안남도 성천군 통선면 군자리에 있는 군수공장을 방문하고 같은 해 6월 15일에 공장야간전문학교를 세우게 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첫 공장대학을 세우게 하였다²⁾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장대학이 증설된 시기는 1960년 이후이다. 공

1)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3. 8. 5), 강호남 편, 『김일성선집』, 동경: 동방사, 1965, 196쪽, 김형찬 외, 『북한의 교육』, 292쪽 재인용.

2) 정성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인텔리 대군의 양성』,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77~79쪽.

장대학은 생산 현장에서 고급의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학습과 노동의 결합이라는 사회주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로써 공장대학은 1960년에 24개교가 신설되었고, 1963년에는 37개교로 증가하였다.³⁾

이 시기에는 지방의 전문적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 설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시에는 지방의 사상·기술·문화 혁명과 경제·문화 건설에 필요한 간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즉, “지방마다 종합적인 간부 양성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은 지방에서 사상·기술·문화 혁명을 직접 맡아 수행할 혁명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믿음직한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온 나라의 모든 지방에서 3대 혁명의 전략적 과업을 다같이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⁴⁾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모든 지방에 자체의 종합적인 간부 양성 기지를 창설하기 위하여 우선 도마다 자기 지방의 정치·경제·문화 발전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마다 특성을 가진 농촌 경리부문 기술자, 전문가를 자체로 양성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수요가 많은 의사와 교원들을 양성하는 보건 및 사범교육기관을 설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리하여 북한에서 모든 지방에 간부 양성을 위한 방침이 관철된 결과로서 각 도마다 농업대학, 광산대학, 수산대학, 기계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양원대학, 공산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이 설

립되었다. 또한 군 단위에서도 한 학교 이상의 고등기술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설치하고, 중요한 공업지역에는 공장대학과 공장 고등기술학교를 설치하였다.

3)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시기 (1972~1984년)

북한은 1972년에 새로운 학제 개편을 단행하여 현재의 북한 교육제도의 기초를 수립하였다. 학제 개편에서는 11년제 의무교육의 기초를 수립하였으며, 10년 기술의무교육의 기반 위에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학제 개편을 통하여 고등전문학교를 새롭게 설치하였는데, 이는 종래의 중등기술전문학교가 고등기술전문학교로 개칭된 것을 새롭게 개편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공장대학도 크게 확대되었다.

북한은 전쟁 후의 피해를 복구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0년대 초반까지 주로 중등교육 단계에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어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을 통한 기술인력의 양성에 주력하게 되었다. 고등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을 육성함과 동시에 산업현장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는 고등교육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967년에 10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현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

3)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288~1289쪽 참고.

4) 강근조, 『조선교육사(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6쪽.

서 이후에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즉, 북한은 '1976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하는 기술자, 전문가를 100만 명 이상으로 이르게 할 것'⁵⁾을 천명하였다.

이로써 교육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1977년 10월 26일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고등교육의 확대와 농장대학의 신설, 고등교육체제 정비 및 전 인민의 인텔리화 추진을 지시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전문지식 함양에 주력할 것을 과업으로 제시하였다.⁶⁾ 그 후 1979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3차회의에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증설하여 점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고등교육 단계에서 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고등전문학교를 증설하였으며 공장대학, 야간학부, 통신학부를 증설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농장·공장·어장 대학을 증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신의주 경공업대학, 창진선박대학, 대관공업대학, 천내공업대학, 용성식료공업대학 등을 신설하였다.⁷⁾ 공장대학은 1973년 한 해에 9개 학교, 1976년에는 10개 대학, 1978년에 6개 대학이 신설되었다.⁸⁾ 또한 1976년 한 해 동안에 11개의 공장대학과 25개의 공장

고등전문학교가 신설되었다.⁹⁾

한편, 방송통신교육은 1980년대 들어서 확대되었다. 1982년에 텔레비전 방송대학이 설립되어 9월 1일에 첫 교육방송을 시작하였다. 또한 통신종합대학인 인민대학습당이 1982년에 개관하였다. 인민대학습당에 대하여 당시의 『조선중앙년감』(1983년)은 “전 인민 학습의 전당이며,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 총수에서 기술자, 전문가의 비율은 1976년에 19.2%에 이르렀으며 협동농장당 기술자와 전문가의 수는 1969년에 17.5명으로부터 1976년에 55명으로, 1982년에 57명으로 증가하였다.¹⁰⁾ 이로써 1972년에 140개 대학이던 것이 1984년에는 216개교로, 고등전문학교는 576개교로 늘어났다.¹¹⁾

4)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정예화 시기 (1985년 이후)

북한은 1985년 이후 1년제 학령전 의무교육과 10년제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전 사회의 인텔리화’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전반적 고등교육 의무제 실현’의 목표를 내세웠다. 이로써 전 인민의 인텔리화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심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예화를 추

5)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결정서”, 『조선중앙년감』(1971), 113쪽, 김형찬 외, 『북한의 교육』, 295쪽 재인용.

6)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266쪽.

7)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267쪽.

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288~1289쪽 참조.

9) 이영환, 『조선교육사(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72쪽.

10) 방완주, 『조선개관』(중국어 판), 북한 외국문출판사, 1987, 140쪽.

11) 이종각, “북한의 고등교육”, 황정규 외,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293쪽.

구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이제까지 사상교육을 중시한 결과, 과학기술교육을 등한시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또한 1984년까지의 경제계획이 자력갱생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층은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이르러, 자력갱생적인 폐쇄 경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경제 개발계획의 방향을 과학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특히 1984년 제정한 합영법으로 인하여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자체 과학기술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1984년 김정일은 '사회주의에 관한 교육테제'를 발표한 7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교육일군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였음을 천명하고 이제는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¹²⁾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 이후 일반대학은 학생선발제도의 개혁과 과학기술교육에 중점을 두어 발전을 모색하였다. 특히 북한은 대학입학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하였다. 이 시험 성적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에 입학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출신성분, 조직생활과 함께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선진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계통의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10개 정도의 대학을 '중심대학'으로 선정하여 학생모집, 교육여건, 교수수준, 교육재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1980년대 들어서 '전 인민의 인텔리화' 정책과 함께 성인을 위한 고등교육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여기에는 직장 성인을 대상으로 공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 방송통신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현지학습반', 직장통신대학원, 재교육학부를 설치하여 직장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1990년에는 북한의 모든 성인들이 중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중등단계의 성인교육기관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단계의 성인교육에 주력하고 있다.¹³⁾ 이로써 북한은 1994년 9월 현재 대학은 266개교, 고등전문학교는 485개교이며,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텔리는 모두 173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북한은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한 이후에 교육부문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1995년 4월 북한의 모든 대학은 김정일의 "우리식 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말씀"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북한의 대학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우리식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대외적으로 불리한 정세와 대내적으로 경제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어떠한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혹시 북한은 '우리식 교육'을 표방하면서 더욱 폐쇄적인

12)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 전국 교육일군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84.

13) 한만길, "북한 교육의 변화 특성과 시사점 분석", 『한국교육』, 제22권, 한국교육개발원, 1995.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2. 북한 고등교육의 유형

북한의 고등교육 유형은 일반 고등교육체계와 성인 고등교육체계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고등교육체계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로서 종합대학, 단과대학, 고등전문학교를 들 수 있으며, 성인 고등교육체계는 직장에 근무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체계로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그리고 일반대학 야간부와 방송통신교육기관이 있다.

1) 일반 고등교육체계

① 종합대학과 중심대학

북한의 종합대학은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여러 부문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이며, 교육연한은 5년 혹은 5년 6개월이다. 또한 이들 대학은 예비과와 박사원을 설치하고 있다. 예비과는 대학 입학 후 1년 동안 대학교육에 대한 예비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종합대학을 포함하여 10여 개의 대학을 중심대학으로 선정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¹⁴⁾ 종합대학과 중심대학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김일성종합대학 :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은 1946년 10월 1일에 북한에서 최초로 설립된 종합대학으로서 북

한의 최고 학습전당으로 불리우고 있다. 현재 15개 학부가 있는데 그 중 인문사회 분야로는 경제·역사·철학·조선어문·외국어문학부가 있으며, 29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문사회 분야의 수업연한은 4년 6개월이다. 자연과학 분야는 수학·물리학·원자력학·자동화·화학·생물학·지리학·지질학 학부가 있으며, 33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과학 분야의 수업연한은 5년 6개월이다.¹⁵⁾

○ 김책공업종합대학 : 공과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은 1948년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분리하여 창설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공학부를 분리하여 평양공업대학으로 설치하였는데, 1953년 6·25 전쟁 당시 사망한 부수상 김책의 이름을 붙여 김책공업대학으로 개칭한 이후, 1988년 9월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다. 현재 15개 학부에 100여 개의 강좌, 10개의 연구소, 3천여 명의 교직원, 1만 1천여 명의 학생이 있으며, 수업연한은 5년 6개월이다.

○ 고려성균관 : 경공업 종합대학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 고대 유적의 발굴 작업과 복구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발굴작업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되자,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인 국자감 창설 1000주년을 기념하여 1992년에 개성에 고려성균관이라는 경공업 분야의 종합대학을 설치하였다. 고려성균관은 개성경공업단과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면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 평양의학대학 : 의과중심대학

평양의학대학은 1948년 9월 8일 김일성

14) 손계림, "북한 교육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개혁동향", 『교육개발』, 97호, 한국교육개발원, 1995. 9월호.

종합대학의 의과부를 분리하여 창립하였다. 북한 의과대학 중 최고의 대학으로서 보건 의학 분야의 간부 양성 기관이다. 수업연한은 5~6년제로서 2백여 명의 교직원과 2천여 명의 학생이 있다.

○ 사리원계응상대학 : 농과중심대학

사리원계응상대학은 북한 농업과학원의 1대 원장이며, 누에 전문가인 계응상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대학이다. 이 대학은 농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 김형직사범대학 : 교원 양성 중심대학

○ 조선이과대학

○ 평양건축전체대학

○ 평양기계대학

○ 함흥화학대학

○ 청진금속대학

○ 평양경공업대학

② 단과대학

단과대학은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기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제는 3~4년이다. 북한 대학의 절대 다수가 각 분야로 세분되어 설치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과대학의 일부는 중앙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요구에 따라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단과대학은 주로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과에 따라 세분되어 있으며, 대학의 규모도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고등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는 1972년 학제 개편에서 고등기술학교를 개편하여 새롭게 설치한 학교이다. 이 고등기술학교는 1959년 짧은 시기에 중등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59년 3년제 중학교와 2년제 기술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설치한 것이다. 고등전문학교는 고등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수업연한은 2~3년으로서 고등교육 단계에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현장기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북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현재 각 지역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요구에 따라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고등전문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고등전문학교는 소규모로 설치되기 때문에 학교 설치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요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한 명의 본과생을 양성하는 경비로 3, 4명의 고등전문학교 학생을 양성할 수 있다고 한다. 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거의 지역에서 부담하며, 학교 졸업생들도 그 지역에서 취업하게 된다.

④ 특수대학

일반대학 가운데 특수한 목적을 가진 대학도 있다. 특수대학은 정치, 경제를 비롯한 각 전문 분야에서 요구하는 특수 전문 요원을 양성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먼저, 당과 정부 또는 군부의 간부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이 있다. 예컨대 현직의 당 고급간부나 진급하기 전의 재교육을 위한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과 각 도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청년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금성정치대학,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관계대학, 생산관리와 경제 분야의 간부를 양성하는 인민경제대학이 있다. 이 밖에도 전문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체육대학, 평양음악대학, 평양미술대학, 평양영화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만경대군사학원, 강반석

혁명유자녀학원 등이 있다.

이러한 특수대학은 각 분야에서 특수 소질을 가진 초등과 중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그들의 특수 소질을 더욱 전문화하도록 양성하고 있다.

2) 성인 고등교육체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공장대학과 공장 고등 전문학교, 농장대학, 어장대학 그리고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통신부와 야간부 그리고 방송통신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① 공장대학과 공장 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은 1960년에 설치되었다. 공장대학은 5년제이며, 공장 고등전문학교는 4년제로서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이러한 학교는 공장과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과 직장이 협동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수업 과정은 기초학과와 생산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상의 문제와 이론 문제를 토의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공장대학은 생산과 학습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연계를 강조하는 교육체계이기 때문에 생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대학이 급속히 발전함으로써 생산현장의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농장대학

농장대학은 1980년대 들어서 창립한 고등교육기관이다. 북한이 전반적 11년제 의

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농촌에서는 영농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농촌지역에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농장대학을 설치하게 되었다. 1994년 현재 농장대학은 10여 개이며, 수업연한은 4년 6개월 내지 5년 6개월이고, 학생은 농장대학 근처의 각 농장에서 모집한다.

③ 일반대학의 야간부와 통신부

대학과정의 야간부와 통신부는 1948년에 시작하였는데 북한의 성인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제도이다. 일반대학은 대부분 야간부와 통신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임교수를 배치하고 있다. 야간부는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강의를 진행한다. 통신부는 1년에 20일씩 대학에 출석하여 강의를 듣고 과제를 수행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교육과정과 교재는 일반대학과 같다. ■

한만길/ 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 강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교육이란 무엇인가』,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외 다수가 있다.

손계림/ 중국 동북사범대학 정치교육학부를 졸업하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에 유학하였으며, 현재 중국 동북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교교육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전후 한국교육 연구』,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 외 다수가 있다.